

2005년도 고분자 토론회를 마치고

2005년도 고분자토론회가 지난 5월 20, 21일 양일간에 걸쳐 클럽휘닉스파크에서 총 40명(연사 3명 포함/산업계 12명, 연구소 10명, 학계 17명, 정부 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분자토론회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선도자들을 모시고 고분자산업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소위 굴뚝산업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화학산업 발전을 주도할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 “국내의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현재의 외국석유화학 산업체들의 M&A 국내석유화학 산업체들의 대응 및 발전방안, 석유화학산업 및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5월 20일 오후3시부터 본 학회 회장이신 조원호 박사님의 환영인사에 이어서 박상훈 SK 기술원장님, 이상선 제일모직 부사장님 그리고 고정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님께서 “석유화학과 기술개발과제”, “한국석유화학 산업의 현황과 대책”, “세계 및 우리나라의 석유수급전망”의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다. 국내의 대표적인 석유화학산업체의 책임자분들과 석유화학산업의 정책을 책임지신 분들답게 국내는 물론 세계의 석유화학산업의 trend 와 발전방향은 물론 behind story 까지 알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이 계속되어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지나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겨우 토론회를 종료할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제일모직에서 간친회를 창조해 주셔서 참석자 모두가 정다운 대화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처음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산, 학, 연과 관에 계시는 여러 참석자들이 개인적인 의견교환과 친교의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가 아쉬웠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면서 밤늦도록 대화의 장을 이끌어 나갔다. 이 자리는 SK 기술원의 창조로 마련되었다. 이튿날에는 참석자간의 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친교행사가 보광 휘닉스파크 CC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2005년도 고분자 토론회는 국내경제의 cash cow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과 전통 고분자산업이 실제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더불어 고분자 연구분야의 산, 학, 연 그리고 관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서로 이해해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강연을 준비해 주신 연사님들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간친회를 창조하여 주신 이상선 제일모직 부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획이사 홍재민>

□ 참가자 명단 (총 40명)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순진	(주)제일모직	김희영	한국화학연구원	이동호	경북대학교
고정식	산업자원부	노석균	영남대학교	이상원	숭실대학교
구정기	제일모직(주)	박상훈	SK(주)	이재홍	한국화학연구원
권익찬	재무이사	박수영	서울대학교	이준영	학술이사
권익현	(주)효 성	부용순	삼성중기원	장지영	서울대학교
김낙중	한양대학교	서용석	KIST	조규찬	SK(주)
김봉식	수석부회장	송현훈	한남대학교	조원호	회 장
김영대	대림산업(주)	심홍구	KAIST	조재영	전무이사
김은영	(주)우 영	안광덕	KIST	조창기	한양대학교
김정안	총무이사	오성경	대림산업(주)	최귀원	KIST
김철희	경희대학교	이상선	제일모직(주)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김형록	한국화학연구원	윤호규	편집이사	최창현	삼성토탈(주)
김환규	충남대학교	이 원	삼성토탈(주)	허완수	숭실대학교
				홍재민	기획이사

